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309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7월 10일 (윤달 5월 17일) 월요일

“좌초 vs 정상화” 담양 메타프로방스 중대기로



담양군이 '대나무밭의 작은 유럽'을 표방하면서 야심차게 추진해온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과 관련한 대법원 최종선고가 이를 앞으로 다가오면서 좌초냐 정상화냐의 중대 기로에 놓이게 됐다.

토지소유주인 원고측은 “투기성 사업으로 인가 취소가 당연하다”는 입장인 반면 사업자측은 “수 천억원의 손실과 입주자 피해에 따른 민원과 소송 대란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자차단체는 “혁신모델로 전국적 벤치마킹 대상”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9일 담양군과 강모씨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1일 오후 강씨 등 주민 2명이 군을 상대로 제기한 메타프로방스 시행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제1형정

부는 지난해 3월 원고 패소인 원심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공익성이 중요함에도 공익사업 수행능력이 부족한 유한회사 디자인프로방스를 시행사로 선정된 것은 중대 하자이며 공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공익시설 부지 등을 제3자에게 팔아 넘긴 것도 명백한 문제라는 판단이었다.

토지의 3분의 2를 수용하지 못한 점과 일부 땅주인의 토지를 잘못 수용한 점, 중요한 서류가 일부 첨부되지 않은 점도 법적 하자로 지적했다.

원고측은 특히 실시계획인가 처분 당시 민간 시행자의 토지수용 비율이 70% 이상이었음에도 군수결재일에는 59%에 불과하고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안에 법인을 쪼갬 것은 공익성 상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씨 등은 “토지강제수용부터 공익보다

1심 “사업 정당” 郡 승소· 항소심 “시행자 선정 하자”
내일 대법원 선고...결과 따라 민원-소송 대란 우려돼
원고 “투기성” 사업자 “수천억원 손실” 郡 “혁신모델”

수익을 앞세웠고 기획부동산이나 투기성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도 크다며 “그럼에도 토지 수용 집행결정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50여건이나 불법 건축물 준공승인과 등기부등본 작성후 매매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업자측은 “담양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사업이 무효화되면 수 천억원의 손실과 기업 도산, 상인 피해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최형식 군수도 항소심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전국적 벤치마킹 대상이고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가, 주민 소득증대 등 미래 정부가 권장해야 할 혁신모델임에도 인가 취소 판결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70%나 진척된 성공적 사업을 중단시킬만한 중대 하자가 있나 의문스럽다”며 “토지수용률 역시 군수결재일이 아니라 관보제시일(11월1일)을 기준으로 하면 72.8%고, 법인 분할은 가능하다는 게 국토교통부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공사진행과 관련한 원고측 고소는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고 설명했다. 군의회와 시민단체, 입주자 등 6000여명은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원하는 탄원

서를 대법원에 수 차례 제출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최 군수 등 군 관계자들은 원고 강씨를 상대로 선고 연기 등을 요구하려고 했으나 강씨가 ‘원상 복구 후 선고 연기’를 고수하면서 협의는 성과없이 끝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담양군은 지난해말 완공을 목표로 3단계에 걸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 21만3000㎡에 메타프로방스 전통 놀이마당 유원지를 조성해왔다.

메타길, 기후변화체험관, 개구리생태공원이 포함된 1단계(12만7000㎡)와 메타숲광장, 체험화습장, 카페테리아, 특산물판매장이 들어설 3단계(5만㎡)는 담양군이 추진 중이며, 상가 59개동을 비롯, 펜션 34개동, 관광·가족호텔 2개 동 등이 포함된 2단계 메타프로방스 마을 조성사업(13만4000㎡, 총사업비 587억원)은 디자인프로방스와 2개 민간기업이 역할 분담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공정률은 1단계는 85%, 3단계는 100%인데 비해 문제가 된 2단계는 70%에 그치고 있다. 상가와 음식점, 펜션은 모두 완공됐지만 지하 1층 지상 4층 78실 규모의 관광호텔만 터파기 상태에서 1년 이상 멈춰서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Photo 漫評

청량제?

자유한국당 홍준표산임 대표가 5일 취임 인사차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았다.

홍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내국회의정실을 방문해 정 의장과 약 30분간 만나 덕담을 주고받았다. 정 의장은 의정실을 방문한 홍 대표를 반갑게 맞으며 “딱 맞는 자리에 찾아오셨다. 체질이 여의도 체질이지 청원 체질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홍대표가 대선 직전까지 경남도지사였다라는 점을 한기, 지사직보다는 여의도 국회를 무대로 하는 중앙정치가 더 잘 맞는다며 환영하는 인사말로 해석된다.

이어 정 의장은 “우리 정치가 홍준표라는 청량제를 만나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꿔달라”라며 “특히 계절도 여름이니 국민이 분위기가 시원하게 바뀌기를 크게 기대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홍 대표는 “제가 원외에서 원내 일을 잘 모른다면서 ‘막힌 걸 뚫는 게 의정님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관련 인사들의 속세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 · 자료 사진=뉴시스



정치 청량제 되달라



언제든 불량제였다



청량제는 아니었지

짚통더위에 악취·소음 등 생활민원 급증

광주 광산구, 총 127건 생활민원 접수...“이웃 배려 행동 필요”

최근 지속된 짚통더위로 각종 생활민원이 크게 늘고 있다.

9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때 이른 무더위가 시작된 지난달 1일부터 이날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57건, 소음 피해 27건, 악취 17건, 위생접점 12건, 방역 9건, 비산먼지 5건 등의 총 127건의 생활민원이 접수됐다.

특히 겨울과 봄철에 제기된 민원과 비교하면 악취·소음 피해·방역 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구에는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 소음 피해 30건, 악취 16건, 비산먼지 12건, 방역 3건 등의 민원이 접수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생활민원은 소음 피해 15건, 악취 6건으로 나타났다.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쓰레기 방치·산업단지 가동에 따른 악취, 각종

공사와 창문 개방 등으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 비산먼지 유입의 민원이 늘고 있는 셈이다.

이밖에도 늘어난 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 요청, 무성해진 가로수로 인한 신호등 가림, 장마철 도로 침수·배수로 막힘, 음식점 관리·감독 요청, 반려동물 소음·아파트 흡연 등 여름철 일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남2지구 한 주민은 광산구 민원 게시판에 “여름철 창문을 열어야 하는데, 하남공단에서 나는 악취로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며 “특히 야간시간대 쇠가루 냄새, 휘발성 유기용제 냄새가 자주 난다. 근본적인 악취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동차설비공업고교 학부모라고 밝힌

김모씨는 “학교 옆에서 진행되는 승정주 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비산먼지와 소음, 진동을 줄이고 시내버스 승강장이 임시 폐쇄돼 겪는 불편함을 해소해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광주지역은 30도를 웃도는 기온에다 평균 85%에 이르는 습도, 열대야까지 겹쳐 불쾌지수가 75~85에 이르고 있다. 불쾌지수가 85 이상이면 거의 모든 이들이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쓰레기와 악취,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는 추세”라며 “이웃을 배려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형택 기자

당신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가족처럼, 친구처럼 오래오래~
우리 결연 언제나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이 있습니다.
슬때마다 즐거운 우체국 체크카드,
든든하게 힘이되는 우체국보험,
행복한 꿈을 주는 우체국예금까지
이제, 우체국에서 만나세요~

언제나 내 곁에~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